



제목	The Authoritative Guide to Persepoli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afirán-Mirdashti Publication
발행일	2004
저자	A. Shapur Shahbazi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241
ISBN 또는 ISSN	978-9649196053

내용 요약

이란어로 타흐테 잠시드(Takht-e-jamshid)라 불리는 파르사(Parsa), 서양에서는 페르세폴리스로 불리는 이 거대한 도시는 다리우스 1세가 즉위하여 내란이 진정된 후 파사르가대와 수사에 이어서 건설한 수도이다. 페르세폴리스는 산을 배후에 두고 사면(斜面)을 이용하여 석조 테라스를 만들고 그 위에 궁전·후궁·보물창고·기록보존소·알현궁인 아파다나·백주궁전 등을 줄지어 지은 장대한 왕궁복합단지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주요 건물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다. 현관의 문설주와 상인방, 문틀, 들보의 볼록한 부분, 토대와 기둥머리 등의 주된 지탱 요소, 기념비적인 현관, 조각된 널찍한 바닥에 사용된 마름들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페르세폴리스 유적 입구에는 거대한 사람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황소상이 2쌍 조각되어 있는데, 하나는 동쪽을, 다른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아파다나는 20m높이 72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고, 기둥의 상단부에는 황소와 뿔이 난 사자머리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파다나에 오르는 계단 측벽에는 전 세계에서 조공하는 민족의 부조가 있는 등 당시의 오리엔트 건축미술을 집대성한 것이다. 왕의 집무실인 타차라(Tachara)에는 옥좌에 앉은 다리우스 1세와 왕세자 크세르크세스 아래로 신하들이 줄을 맞추어 서 있다. 또한 기록보존소에서 출토한 점토판으로 된 문서 약 2만 장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경제를 소개하고 있다.